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우리 엄마가 있었네”

전남교육청, 전남 학부모 인생 담은 특별전시회

전남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청사 1층 로비와 갤러리 이음에서 열리는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우리 엄마가 있었네’ 특별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학부모들이 전남교육의 숨겨진 영웅이며, 그분들의 삶과 인생이 전남교육 역사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이제는 전남교육이 K-교육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해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남교육의 정신을 상징하는 정색으로 전시회 바탕을 꾸었으며,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을 표현하기 위해 심벌마크와 신호등 색의 의미를 전시 주제에 담았다.

전시회는 엄마의 따뜻한 품이 느껴지는 찬란한 봄의 서사를 시작으로 학교가는 길(슈퍼맨 우리 엄마), 학교 속 안길

(참여자 우리 엄마), 학교 밖 큰길(등대 우리 엄마)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 가는 길’은 여수·가장도 모정의 뱃길, 신안 기점·소악도 노들길, 녹색 어머니로 채워졌으며, ‘학교 속 안길’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변화 과정을 담았다. ‘학교 밖 큰길’은 우이도, 중태도, 소악도, 도초도 4개 섬 지역 부모님의 인생과 철학을 표현했다.

첫날 개막식 행사에서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생동감을 더하고 관람객에게 작품 감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시회에 활용되는 자료는 전남교육청이 직접 발굴한 콘텐츠를 비롯해 신안군청·전남여성가족재단·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등 5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는 사진 243점, 영상 265점, 전시유물 14점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전시회에 이어 오



전남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육가족들이 23일 청사에서 열린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우리 엄마가 있었네’ 특별전시개막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는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로비에서,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안군청 로비에서 순회 전시회를 열어 전남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전남교육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전시를 하나로 아우르는 (가칭)전남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기록원이 지향하는 목표를 반영

한 것으로, 기관의 역사는 물론 전남교육공동체 이야기를 담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선국 총무과장은 “전남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해주시는 전남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남도민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전남교육 역사로 기록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광산구새마을회, 26일 사랑나눔 돌봄잔치 연다

(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새마을회(회장 안덕홍)는 오는 26일 오전 광산 생활문화센터 3층에서 2025 사랑나눔 돌봄 잔치를 170여 명 어르신을 초청하여 정성껏 준비한 닭죽과 과일, 음료 등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공경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 나눔 돌봄 잔치’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와 화합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 해가고 있으며,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잔치가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식전 행사로는 어울림 국악예술단 난타 공연, 해당화 라인 댄스팀 라인댄스, 2부 위안공연은 어쿠스틱 하모니 통기타 공연, 광주 빛 잔들 부채춤 부채춤 공

연에 이어 축하 행사로는 초청 가수 민성아 심봤다. 가수 남수동 친구야, 가수 김영애 살기 좋은 대한민국, 가수 정철 만수무강, 가수 한세희 섬진강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부녀회원들이 손수 만든 음식과 다과 등 정성이 담긴 먹거리도 푸짐하게 준비한다.

또한 (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새마을회는 사랑 나눔 돌봄 잔치 이외도 추억의 공쿠르대회가 열려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옛 추억과 함께 한가위의 또 다른 즐거움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으며, 올 추석 연휴에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노래와 장기자랑을 하며 화합을 다졌던 추억을 되살려 보고자 하는 취지로 옛 추억 공를 대회를 광산구 동곡동 기쁨마을에 준비 중에 있다.

/오덕근 기자

“기초수급자에서 서구아너스로”

어려운 시절 이겨낸 주택관리사 송순희씨, 나눔으로 보답

아주 특별한 마음부자가 서구아너스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23일, 삶의 고비마다 받은 작은 은혜를 되새기며 조용한 나눔을 실천해 온 주택관리사 송순희 씨의 ‘서구아너스’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한 때 장애와 가난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야 했던 시절, 수도물 한 방울도 아껴 쓰고 한 끼 식사로 하루를 버티며 합거운 시간을 견뎠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가던 어느 날, 지친 눈을 위해 복지공무원이 선물한 작은 LED전등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

다. “그 전등이 제 인생의 빛이 됐어요. 자격증 시험 합격 후 저를 안고 올려주시던 복지공무원의 따뜻한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든 힘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주택관리사로 자립에 성공한 송씨는 어느 날 몸이 불편해 누워만 있던 뇌병변 장애인을 보며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품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살던 동네 인근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에 해마다 컵라면 300박스, 계란 200판, 현금 수백만원을 10년 넘게 기부해오며 ‘소중한 한 끼’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땀 흘려 번 돈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송 씨의 나눔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날 가입식에 함께 한 김이강 서구청

장은 “송순희 씨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람을 향한 진심과 회복의 이야기”라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나눔으로 이어지는 ‘마음부자’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함평군 손불면, 폭염 대비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전남 함평군 손불면이 폭염을 대비해 취약계층 물보기에 나선다.

함평군은 24일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수영·백형갑)가 이달 말까지 취약계층에 500만 원 상당의 쿨매트 및 습기제거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가정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협의체와 손불면 복지기동대가 힘을 합쳐 가정을 방문해 물품 전달하며 폭염 및 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름철 안전관리 수칙과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백형갑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앞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수영 손불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



속에 우리 손불면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복지사각지

대 없는 건강한 손불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준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영광·고창군 난치병 학생 지원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지난 6월 19일(목), 한빛본부 에너지팍에서 영광·고창군 관내 난치병 학생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시행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면 본부장, 최훈 대외협력처장, 영광군교육지원청 정병국 교육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은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성금은 영광·고창군 내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은 2천 2백만 원 상당으로 한빛본부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의료비뿐 아니라 따뜻한 희망을 함께 전달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